



광주·전남선도기업협회 본격 가동

중소 성장 '밀거름'

지역 중기 145곳 회원사로 참여 시장 확대·생산 판매 공동 보조

15일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활동에 들어간 광주·전남선도기업협회는 중소기업들로 조직된 단체답게 분과위원회 체제로 운영될 계획이다.

10개 분과위원회는 기계·철강, 부품·소재, 광산업, 자동차, 조선, 금형, 생명·식품, 문화·디자인, 화학·환경·에너지, 전기·전자 등으로 각 분과위원장이 부회장직을 수행한다.

이들 분과위원회는 ▲산학연 공동 연구개발사업 ▲경영·기술·품질관리 교육 및 정보제공 ▲시장확대를 위한 대기업과의 연계사업 개발 ▲해외마케팅 추진 ▲생산·판매 등 공동사업 ▲회원의 건의·애로사항 조사 및 중소기업 정책발굴·제안 등 구체적인 사업들을 추진하게 된다.

또 선도기업협회는 회원자격 기준을 엄격하게 제한, 명실공히 광주·전남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단체를 지향

할 방침이다. 제조업 및 제조관련서비스업, 언



광주·전남선도기업협회가 회원사 및 유관기관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5일 광주신산업파크호텔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광주 온 흥석우 중소기업청장

“공공기관 물품 살 때

중소 제품 우선 구매”



흥석우 중소기업청장은 15일 “공공기관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광주·전남선도기업협회 창립식 참석차 광주에 온 흥석우 청장은 지역 중소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우수 중소기업 제품이 많지만 관측에 큰 애로를 겪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흥 청장은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된 지방 중기의 경우 석·박사 등 고급인력을 확보하고 싶어도 수도권 기업이 나 대기업에서 독식하는 바람에 사람을 구할 수 없다는 하소연에 대해 “최근 관련 법을 보완해 이 같은 문제점들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도움으로 지역 중소기업이 부족한 기술력을 극복한 사례가 있는 만큼 중소기업이 기술인력을 충분히 확보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스포티지·카렌스·쏘울 ‘트로이카’ 주력 광주·전남 점유율 내년 상반기까지 50%”

김재평 기아차 영업 본부장 간담회



생성되고 있는 모닝·로체 이노베이션·포르테 등 제품들 외에 광주공장이 대표차종으로 내세운 2004년의 스포티지, 2006년의 카렌스와 함께 지난달에 나온 쏘울 등 ‘트로이카’의 판매확대에 주력하기로 했다.

기아자동차 광주·전남지역본부(영업부문·본부장 김재평)가 내년 상반기까지 광주·전남 시장점유율(M/S) 50% 달성을 선언하고 나섰다.

김재평 본부장은 15일 광주시 서구 내방동 광주·전남본부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쏘울 등 신차 시리즈 출시와 파격적인 디자인경쟁에 힘입어 올 말까지 지역시장 40%를 점유한데 이어 내년 6월까지 50%를 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아차의 지역시장 점유율은 2003년 28.0%, 2004년 28.3%, 2005년 29.3%, 2006년 27.9%, 2007년 28.2%에 이어 2008년 1~8월 31.9%에 달한 상태다.

그러나 울산시를 기반으로 한 현대차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현대차의 경우 울산시에서만 2006년 66.8%, 2007년 66.0%, 2008년 1~8월 63.1%로 절반을 크게 넘었다.

김 본부장은 “현대차 울산공장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에 불과하지만, 기아차 광주공장은 30%에 육박하고 있다”면서 “광주공장의 이같은 기여에도 불구하고 M/S 비중은 크게 높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본부는 화성·소하리 공장에서

특히 출시 이후 한달을 넘기기도 전에 4천500대가 예약판매되면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쏘울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와 마케팅을 전개할 방침이다.

그러나 쏘울의 광주·전남지역내 판매현황은 광주·전남본부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기아차가 생산하고 있는 전 차종의 지역내 판매비중인 6.8%를 크게 밑도는 5.3%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김 본부장은 “홍보와 마케팅이 미흡한 점도 있었지만, 수도권에 비해 고강도의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지역실질도 상당부분 작용한 때문”이라며 “앞으로 쏘울의 주요 고객층으로 분류되고 있는 20~30대 젊은 층과 여성층을 겨냥, 출시 및 다자녀 가정 할인혜택 등 획기적인 판촉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스포티지 가솔린 모델 출시 기존보다 연비 7.1% 향상



기아차는 15일 연비를 향상시켜 경제성을 한층 높인 SUV 스포티지 가솔린 모델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스포티지 가솔린 연비(자동차연비 기준)는 기존(9.9km/l)보다 7.1% 높아진 10.6km/l이다. 판매가는 변동 없이 1천604만~1천921만원이다.

기아차는 이와 함께 이달 9일 V6 3.8 랩다 및 V8 4.6

타우 엔진을 장착한 모하비 가솔린 모델을 출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가솔린 SUV 라인업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펀드 만들어 미분양 매입”

분양가 인하 전제 건설사 금융 지원 추진

민간업체 공공택지 해약·매각 허용 검토

건설업체들이 분양가를 내리는 것을 조건으로 펀드를 통해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이거나 대출 또는 어음의 만기를 연장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민간이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분양받은 공공택지중 일부는 해약을 허용해 주고 공공택지의 소유권이 넘어가기 이전에도 다른 업체에 팔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15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미분양 아파트 급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체들에

분양가 인하와 같은 자구 노력을 전제로 금융 지원을 할 계획이다.

정부는 미분양 아파트를 풀이는 것을 급선무로 판단하고 자산운용사들이 투자자를 모아 ‘미분양 펀드’를 조성하면 여기에 건설업체들도 참여해 펀드의 아파트 매입 가격 등을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펀드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보지 않도록 아파트 가격이 급락하면 해당 건설업체가 차액을 일부 보전하거나 되사들이도록 조건을 달 방침이다.

건설업체의 부도에 대비해 대한주

택부금이 보증을 서고 실제 부도가 났을 때는 주택공사 등이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미분양 펀드의 상품을 설계할 때 건설업체도 참여시킬 것”이라며 “대신 건설업체는 분양가를 대폭 낮추는 조건으로 펀드 투자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분양 펀드 투자자에게 소득공제나 금융종합소득 분리 과세 등의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기획재정부가 세수 감소를 우려해 난색을 보이고 있어 성사 여부가 불투명하다.

정부는 건설사들이 미분양 아파트를 담보로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해 자금을 빌 수 있도록 보증기관이 이 채권에 대해 일부 보증을

서 발행과 수요를 촉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또 보증기관의 특별 보증을 통해 건설업체들의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국책은행이나 시중은행에서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연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2조6천여억원 규모의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의 상환을 연장해 달라는 건설업체의 요구에 대해서는 일괄 연장보다는 선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채권은행단을 통해 건설업체들의 재무 상황과 영업 전망, 회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 지원 대상과 수준을 결정할 계획으로, 건설업체의 자구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모든 건설업체가 아닌 회생 가능성 등을 고려한 선별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며 “특히 국민이 정부 지원을 이해할 수 있도록 건설업체들에 분양가 인하 등의 조건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美 쇠고기 1만2천여 톤 들여와

지난 6월 수입 재개 이후

지난 6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된 뒤 지금까지 검역이 완료된 쇠고기는 약 2만t이며 이 가운데 기존에 검역·선적대기중이었던 것을 제외한 순수 신규수입물량은 1만2천300t인 것으로 14일 파악됐다.

주미대사관에 따르면 지난 6월26

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고시 관보 게재를 통해 미국산 쇠고기의 한국수입이 재개된 뒤 9월말까지 총 1만9천986t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이 완료됐다.

특히 기존에 국내에서 검역대기중이거나 미국내에서 선적을 기다리던 물량을 제외한 순수한 신규 수입물량은 1만2천300t이라고 대사관

은 밝혔다.

또 한국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늘어나면서 한국에 쇠고기를 수출하는 미국 작업장수도 48개로 늘어났다.

대사관에 따르면 기존 승인 작업장 30개에다가 미국측이 추가로 22개 작업장을 신청했으나 1개소는 승인요청을 자진 취소했고, 3개소는 위생관리 등 문제가 있어 보완조치를 취하도록 통보, 현재 한국 수출 미국내 작업장은 48개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Real estate and car advertisements. Includes sections for '부동산 대출' (Real Estate Loans), '중고자동차 전차종 매입·판매' (Used Car Buy/Sell), and various real estate listings with contact information.